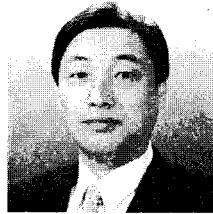


신년사



회장 임연학

희망에 찬 새천년의 한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생약인 여러분과 관련부처 산하에서 생약농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분들께 새천년 원단에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드림을 특히 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신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정부가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과 관련해 내놓은 규제개혁방안은 생약관련업계에 새바람으로 작용, 오랫동안 묶여있던 유통의 매듭을 푸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약용작물의 신품종

육성, 재배방법 개선등의 연구와 생약의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개발이 활발하였으며 국산한약재의 품질인증제 도입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약용작물은 단순한 농가소득작목이 아닌 자원

미래자원으로서 보존필요성 인식할 때

식물로, 떠오르는 미래자원으로서 보존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때입니다.

새해에도 생약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저비용 고품질 생약재 생산과

주산지 생산품목의 제품개발, 국산생약재의 차별화, 친환경적 생약농업의 지속적 발전 그리고 기술개발의 확충 및 새로운 수요와 시장개척등 농가소득 향상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

지 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것입니다.

특히, 생산의 저변확대를 위한 생약가격 예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우량종자 종근공급을 위한 종묘포장 사업을 계속 확대하여 생

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국산생약과 관련한 각계의 보다 폭넓은 참여를 극대화하고 또한 현실적인 수익사업을 창출하여 협회의 건전한 재정확립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생약인 여러분! 새천년 생약농업과 한의학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우기 위해 업계간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합의 해로 열여가는 원년이 되길 기대합니다. 새천년 새해 희망과 보람찬 밝은 새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생약인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운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중국 WTO가입에 따른 수입금지 대비 동식물 검역·식품검사제도 정비시급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에 따른 중국산 저가농산물의 수입 급증에 대비, 동식물 검역및 식품검사제도의 강화등 수입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WTO가입과 한국농업'이란 연구보고에서 중국의 가입이 확정될 경우 저가제품이나 유사상품 등이 범람, 국내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특히 중국은 중국내 생산자및 정부의 인식부족으로 농산물 검역제도가 형식적으로 허술하다고 진단하고 국제기준

에 입각한 중국산 농산물의 검역을 통한 수입통제는 세계무역기구 규범에도 어긋나지 않는 만큼 검역해제의 정비와 검역시설및 인력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농경연은 또 미국·일본·유럽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세체계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낮아지는 역관세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다른 성분과 혼합하거나 냉장처리 등을 통해 높은 관세를 회피하는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면서 관세체계의 시급한 정비를 촉구했다.

농경연은 이밖에 계절관세·차액관세등 탄력관세제도의 정비, 수입국이 단기간

에 급증할 경우 발동하는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 등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채류 '동아' 혈압강하 효능

과채류인 동아가 혈당강하 효능이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홍석산 박사팀은 최근 전북 순창군 금과농협에서 특산품으로 재배하는 동아가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강하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박사팀의 실험에 따르면 동아분말을 당뇨증이 유발된 실험용 쥐에 하루 체중 1kg당 0.75g씩 4주간 투여한 결과 혈당농도가 33.1% 감소하고 체중은

28.6% 증가했다.

또한 비만과 고혈당증이 유발된 쥐에게 동아추출물을 하루 체중 1kg당 0.2g씩 8주간 투여하자 혈당농도와 체중이 각각 7.4%, 10.3% 감소했다.

임상실험에서도 당뇨환자들에게 동아와 동글레, 구기자 등의 생약재 열수 추출액 1백g을 하루 3회 4주간 섭취시킨 결과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공복시 혈당이 140.3 ± 21.3mg/dl에서 126.9 ± 22.7mg/dl로 9.6% 감소했다.

농림부장관상 수여

구립31일 한국생약협회 회의실에서는 그동안 생약농업 발전과 우리생약살리기에 공이 큰 생약재배 농민및 산하회원들에게 농림부장관상을 수여했다. 농림부장관상 시상자는 다음과 같다

△이영갑 (경남도지회장)=지난83년 통영군 지부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역특성에 맞는 생약재를 발굴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왔다.



△권순직 (중앙이사)=지난72년 부산 진구 지부장으로서 취임한 이래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 방안 강구에 주력해 오



△신현석 (경기도 양평군 지부장)=국산한약재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생약재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주력 국산약재의 다양한 수요창출에 기여



△이영화 (중앙공관장차장)=협회에서 추진하는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 실무담당자로서 우리생약살리기에 앞장서 오

'숙취해소' 식물성음료 개발

지구자나무·참뿌리등 추출한 혼합물 사용

강원도 양양지역에서 많이 자생하는 지구자나무와 참뿌리 등을 원료로 술개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기능성 음료가 개발됐다.

강원대 식품생명공학부 이현용 교수팀은 최근 지구자나무와 참뿌리, 오리나무 등에서 추출한 혼합물을 이용해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음료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교수팀은 지구자나무의 열매 껍질과 참뿌리, 오리나무 껍질 등에 물과 에틸알코올 등을 혼합, 추출한 물질로 알코올 분해능력을 실험한 결과 혼합물 내 각

각의 물질로 만든 추출물보다 3배 가량 효과가 뛰어났다고 밝혔다. 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과 알코올 분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전 이 음료를 복용한 사람은 45%, 음주후에 마신 경우는 68%, 음주전후 모두 마셨을 때 89.5%가 각각 숙취해소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음료는 도내에서 자생하는 향초 추출물을 가미해 독특한 향을 내는데다 장기적으로 마실 경우 위장보호와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미자 장기저장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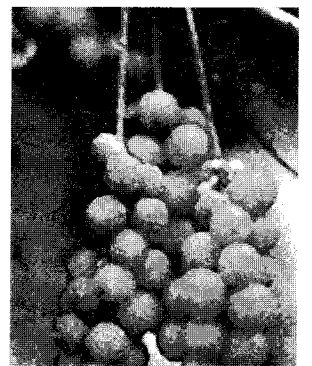
PE필름에 밀봉, 10개월이상까지 저장가능

한약재로 사용하는 건조 오미자를 장기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농촌진흥청 호남농업시험장은 건조 오미자를 PE(폴리에틸렌)·투명필름에 밀봉하면 부패율을 낮출수 있어 최고 10개월 이상까지 장기 저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장 및 저장 방법, 저장기간별 부패율을 실험한 결과 △양파망에 넣어 창고에 6개월 저장한 경우 부패율 28% △0.5mm두께 PE 필름

을 씌워 창고에 8개월 저장한 경우 부패율 3% △같은 방법으로 포장해 섭씨 5도의 저온저장고에 10개월 보관한 경우 부패율 2% 등으로 나타나, PE필름 활용시 저장기간은 길어지고 부패율은 크게 낮아졌다.

또 상품성의 기준이 되는 안토시아닌 함량과 적색도를 조사한 결과, PE필름으로 창고에 저장했을 때에는 50.6%와 78.8%, PE필름으로 섭씨5도의 저온저장



고에 보관했을 때에는 50.1%와 84.4%로 나타나 양파망 저장의 경우 60.6%와 61.2%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은 다소 줄었지만 적색도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농업시험장 0653-840-2251>